



생생리포트



금융의 미래 핀테크: 서울시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 I. 서울시, 핀테크에 눈뜨다
- II. 핀테크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
- III. 서울을 아시아 핀테크 산업 중심지로

서울특별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
이희원 heewon@seoul.go.kr

3/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관심 경제 이슈

- I.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 II. 서울의 3/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 III. 서울시민의 관심 경제 이슈
: 가정용 전기 누진제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최봉 cbong@si.re.kr

금융의 미래 핀테크: 서울시의 핀테크 산업 육성 전략

I. 서울시, 핀테크에 눈뜨다

세계적으로 어려워지는 금융 환경과 금융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금융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것이 핀테크(Fintech)다. IT기술이 발달하면서 IT는 본연의 기술을 응용하는 것을 넘어 금융, 바이오, 농업, 자동차 등 다양한 영역과 융합하기 시작했다. 핀테크는 Finance와 Technology의 합성어로 금융과 IT기술 영역이 융합된 것을 의미한다.

서울시가 핀테크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은 2015년부터였다. 서울시는 전통적 금융 중심지인 홍콩, 싱가포르 등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대표 금융 중심지가 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다른 한쪽에서는 금융 사업 환경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서울을 떠나는 글로벌 금융 회사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었다. 서울시는 홍콩, 싱가포르 등과 차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기업들에게 매력적인 금융 산업 활성화 방안이 필요했고, 세계 최고의 IT인프라를 갖춘 서울의 장점과 금융을 결합시킨 핀테크 산업 육성이 바로 그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투자유치과는 2015년 6월에 핀테크 산업 육성 방안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유럽의 금융 중심지이자 핀테크 분야에서 가장 앞서있는 영국의 런던을 방문했고, 'Level39'(레벨39), '바클레이스 핀테크 엑셀러레이터' 등과 미팅을 가졌다. 마침 레벨39는 아시아 진출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서울시는 레벨39의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을 들여오기 위해 레벨39의 운영회사인 'Entiq'(엔틱)과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 지원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그 결과 엔틱사는 양해각서 체결 1년 후인 2016년 7월에 프로그램 출시 행사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서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그림 1〉 서울시-Entiq사 MOU 체결(2015.6.18, 런던 엔틱사에서)

서울시는 싱가포르, 룩셈부르크, 상하이 등 해외 선진 핀테크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핀테크 산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다양한 도시의 정부 및 기업 관계자를 만났다. 핀테크가 금융 산업의 새로운 영역이다 보니 기존 규제로는 판단할 수 없는 이슈들이 발생하게 된다. 해외 선진 핀테크 도시들은 공통적으로 중앙정부, 지방정부, 전통적인 금융회사, 핀테크 회사 관계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순간순간 발생하는 규제, 환경 등의 이슈에 빠르게 대처한다는 특징이 있었다. 또한 규제자유지역 (Regulatory Sandbox)을 만들어 새롭게 개발된 기술들이 계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단순히 해외 선진 핀테크 시장의 벤치마킹만으로는 국내 사정에 맞는 전략을 세우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는 2015년 말 ‘서울 핀테크 산업 자문단’을 구성해 운영안을 마련하고, 2016년 2월에 발대식을 가졌다. ‘서울 핀테크 산업 자문단’은 1) 핀테크 관련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 방안을 마련하고, 2) 국내 산·학·연 및 금융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핀테크 산업 협력체를 마련하겠다는 목적으로 꾸려졌다.

자문단을 구성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자문위원을 선정하는 일이었다. 핀테크 기업들에게 필요한 현실적인 산업 육성 정책을 마련하

기 위해 핀테크 산업에 대한 지식과 실제 핀테크 기업을 운영하면서 몸으로 느낀 경험이 있는 전문가가 필요했고, 기존 금융 규제에는 적용되지 않는 새로운 IT금융 융합산업에 대한 법률 전문가도 필수적이었다. 선정된 자문위원은 총 18명으로 6개의 핀테크 회사 대표를 비롯해 기존 금융회사, 벤처캐피털, 미디어, 연구소, 학교, 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자문단이 탄생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자문위원들과 수시로 이메일과 전화 등으로 소통하면서 핀테크 산업의 각 영역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자문을 받고 있다. 이렇듯 핀테크 산업 자문단은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원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 서울시 핀테크 산업 자문단 위촉식

Ⅱ. 핀테크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

2016년 4월 18일, 박원순 서울시장과 7개의 핀테크 기업 대표단이 함께 협력사업 개발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 고객의 요구를 파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듯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 핀테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을 직접 만나 현장의 소리를 듣고 서울시가 실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는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핀테크 기업들이 서울시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논의했고, 서울시가 담당부서에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준비했던 핀테크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표 1〉 서울시 핀테크 정책 방향 및 주요 추진 과제

구분	주요 내용
정책 방향	① 핀테크 산업 클러스터 조성 ② 핀테크 스타트업 창업 활성화 ③ 핀테크 산업 인프라 확충
주요 추진과제	◆ 여의도와 영등포에 핀테크 특구 지정 ◆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창업·성장 지원 ◆ 핀테크 인력 양성·교육 실시 ◆ 해외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와의 협력 체계 구축

자료 2016 서울시 핀테크 산업 육성정책

논의 결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의 레퍼런스 구축’과 ‘금융회사와 투자 유치 등에 필요한 네트워크 지원’이 핀테크 기업들에게 가장 필요한 두 가지 사항으로 압축됐다. 핀테크 스타트업이 뛰어난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개발했다고 해도 이름도 알려지지 않고 사업 경험이 부족한 이들을 바로 파트너로 받아들여 줄 기업은 극소수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레퍼런스이다. 서울시가 고객이자 파트너라는 것은 핀테크 기업들에게 사업 기회를 마련해주는 좋은 발판이 된다.

서울시는 핀테크 기업들에게 10여 개의 협력사업 아이디어를 제안받아 이를 내부적으로 각 부서와 검토한 후 서울 디지털 화폐 발행, 모바일 소액 외환송금서비스 활용, 중국 관광객 간편결제시스템 도입, 카드2폰/폰2폰 시스템 도입 등 4개의 시범 사업을 선정했다. 시범 사업은 레퍼런스가 부족한 핀테크 기업들에게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업의 ‘경력’을 쌓을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선도적인 시범 사업을 추진해 핀테크 산업 육성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인구 천만 도시에서 시범 사업이 시행되면 사업 결과에 따라 다양한 효과와 문제점을 검증할 수 있고,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 결국에는 그 산업을 육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5년에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전국 최초로 관공서에서 핀테크 기반의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것으로 서울시가 앞장서서 테스트베드가 되어 산업 발전에 기여한 사례이다.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에 이어 서울시는 현재 선정된 핀테크 시범사업 아이템들의 추진 절차와 업체 선정 등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시범사업 추진과 더불어 스타트업들의 해외진출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올해 두 차례의 해외 투자유치 행사를 개최하여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금융사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서울시는 해외 핀테크 산업 협력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2016년 6월 호주 시드니에서 호주 최대 핀테크 엑셀러레이터인 'Tyro Fintech Hub'(타이로 핀테크 허브)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3개의 핀테크 업체가 함께했으며 타이로의 대표가 한국 업체들의 소개를 듣고 파트너로 적합한 현지 회사의 대표들을 즉흥적으로 불러 미팅을 주선하기도 했다. 2016년 9월 미국 뉴욕에서는 핀테크 5개사를 포함한 10개의 국내 스타트업과 함께 50여 명의 뉴욕 현지 투자자, 기업 관계자들을 초청해 '서울 스타트업 데모데이 in 뉴욕'을 개최했다. 현장의 반응은 뜨거웠다. 행사 후 몇몇 투자자 참가 기업들과 미팅을 위해 직접 대표들과 얘기를 나누며 투자에 대한 관심을 표현했고, 지방정부가 직접 나서 해당 지역 기업들의 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박수를 보냈다. 이 행사에 참여한 한국의 스타트업들도 감사를 표현했으며, 행사의 결과로 각 스타트업 현지에서 만난 투자자 및 기업 관계자들과 투자 규모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그림 3〉 서울 스타트업 데모데이 in 뉴욕

Ⅲ. 서울을 아시아 핀테크 산업 중심지로

2015년부터 준비한 레퍼런스 구축 사업과 해외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업들을 통해 스타트업의 레퍼런스 구축을 도와주고, 서울을 핀테크의 테스트베드로 포지셔닝하여 서울을 아시아 핀테크 산업의 중심지로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미 싱가포르, 일본, 호주, 미

국 등의 기업들이 서울의 핀테크 기업들과 협력하거나 투자를 검토하기 위해 서울을 방문하고 있다. 서울시의 핀테크 육성 정책과 활동 등을 뉴스에서 접한 다른 나라의 핀테크 협회와 정부들도 문의를 위해 연락하고 있다. 서울을 아시아 핀테크 허브로 만들기 위해 기울였던 지난 2년간의 노력들이 하나둘씩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서울시는 글로벌 핀테크 투자자와 기업들이 서울의 핀테크 기업들과 교류할 수 있는 창업지원 및 엑셀러레이팅 공간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이곳은 국내·외 핀테크 관련 기업, 투자자, 엑셀러레이터들이 한데 모여 글로벌 핀테크 기업을 키워나가는 공간이 될 것이다. 이외에도 집적효과를 위해 영등포구 일부에 핀테크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등 핀테크 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처럼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제대로 된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금융 전문 인력 외에 추가로 신규 인력을 채용할 예정이다.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서는 서울이 아직까지 제대로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핀테크 산업에서는 다른 금융 중심지들과 한번 겨뤄볼만 하지 않을까? 서울시가 아시아의 핀테크 산업 중심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일들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우리는 묵묵히, 그리고 열정적으로 그 길을 가려한다.